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018, Vol. 23, No. 3, 525-548

경력단절여성의 진로탄력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 능력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김 애 심 장 진 이†

대구가톨릭대학교

본 연구는 경력단절여성의 진로탄력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조절 능력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력단절여성 243명을 대상으로 진로탄력성, 정서조절 능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진로탄력성은 진로준비행동, 정서조절 능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탄력성은 정서조절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정적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서조절 능력은 직접적으로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그리고 추후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고, 경력단절여성의 진로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한 상담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경력단절여성, 진로탄력성, 정서조절 능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

* 본 연구는 김애심(2017)의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 장진이, 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38430) 경북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13-13.
Tel : 053-850-3237 / E-mail : jyjang21@cu.ac.kr

www.kci.go.kr

최근 한국사회는 장기불황 속에 저출산 및 고령화 시대를 맞아 생산인구의 감소와 경제 성장의 침체를 겪고 있다. 이에 생산 가능 인구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여성 인적자원 활용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조선일보, 2016). 이처럼 여성 경제 참여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정부에서도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2008년 경력단절여성법, 2012년 아이돌봄지원법 등의 정책을 시행하였고(김성진, 2015), 그에 따라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49.4%, 2013년 50.2%, 2015년 51.8%로 상승되었다(통계청, 2016a).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마련과 여성의 경제 활동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OECD, 2015). 또한 여성의 연령별 경제 참여율은 20대에 높고 30대에 급격히 낮아지며 40대에 다시 높아지는 M자형 곡선으로 나타나는데, 결혼, 임신, 출산 등 여성의 생애 사건으로 인해 노동시장을 떠났다가 일정기간 이후 다시 돌아오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김진하, 2016). 여성의 경력단절은 국가 인적자원 활용 차원에서도 비효율적인 만큼 여성 인력을 활용하여 경제성장률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 잠재력을 상승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김민정, 2013).

한편,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는 국가적 차원만이 아닌 여성 개인에게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의 88.7%가 취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52.8%가 “가정일에 관계없이”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통계청, 2016c). 즉 현대사회에서 여성은 자신의 직업을 갖는 것이 생애 발달 과업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의 인식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혼여성 취업자의 46.4%는 경력단절을 경험하였으며, 기혼여성 중 20.6%가 경력단절여성이다(통계청, 2016b).

경력단절여성이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 돌봄 등의 이유로 자의적 혹은 타의적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이다(권희경, 2010; 이희정, 김금미, 2010). 이들은 경제적 이유, 사회적 관계 지향, 일의 의미 실현, 노후 준비 등과 같은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이는데(김수리, 이수림, 유정이, 2015), 실제 경력단절여성 중 45.3%가 1년 이내 취업 또는 창업 의향을 가지고 있었다(허미연, 2010). 하지만 이들은 재취업에 대한 불안, 긴장, 걱정 등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였고(김수리, 이수림, 유정이, 2015)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실제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거나, 일자리 수준 하향화 등과 같은 진로장애를 경험하면서 재취업에 어려움을 경험하였다(김성진, 2015; 윤미례, 김태일, 2016).

기존의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들은 인적자본 요인과 가족 및 가족생애주기 요인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맥락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경력단절여성의 인적자본 요인으로는 본인의 연령(김지경, 2004; 박수미, 2003), 학력(김주영, 2010; 김지경, 2004), 이전 취업 직종(박수미, 2003; 오은진 등, 2009), 경력단절 기간(박효진, 은선경, 2012) 등이 있다. 연령이 높을수록 재취업 확률이 높아졌으나(김난주, 2016), 경력단절여성의 학력과 재취업과의 관계는 일관되지 않았다. 학력과 관련해서는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취업 전선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은 반면(김지경,

www.kci.go.kr

2003), 대졸이상 등(김난주, 2016) 고학력 여성일수록 취업률이 낮았다(서미경, 2009).

가족 및 가족생애주기 요인으로는 자녀 수(박수미, 2003; 최은영, 2016), 자녀 나이(김난주, 2016; 정성미, 2006; Stier & Yaish, 2008), 남편의 소득(김지경, 2004) 등이 있다. 또한 8세 이하의 자녀의 존재 유무가 재취업 유지와 관련이 있었다(김난주, 2016). 권희경(2010)의 연구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욕구와 가족의 소득수준, 경제적 압박, 성취동기, 막내자녀의 연령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재취업 욕구가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위에서 살펴본 사회문화적 맥락 요인 외에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변인으로 진로준비행동을 들 수 있다. 진로준비행동은 최근에 청소년이나 대학생뿐만 아니라 경력단절여성의 진로발달과 관련되어서 꾸준히 연구되어 오고 있다(김소연, 2016; 이희정, 김금미, 2010; 임은주, 2012; 조익재, 2016; 최유진, 손은정, 2016). 진로준비행동은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행동이나 진로목표를 결정한 이후 목표 달성을 위해 하는 행동을 의미하는데, 진로와 관련된 준비행동 및 실천적 행동 모두를 포함한다(김봉환, 1997).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기관 방문은 취업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장지현, 김민영, 장원섭, 2010),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에 취업준비행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은혜경, 김창대, 2011). 즉, 올바른 진로 결정을 위해서는 인지적, 태도적 수준뿐만 아니라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행인 진로준비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김봉환, 김계현, 1997; 김지연, 이기학, 2014), 상담자는 내담자가 진로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Krumboltz, 2009).

그러나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에 대한 의사와 실질적인 진로준비행동으로서의 구직활동은 서로 분리되어 있었다(권희경, 2010). 취업욕구와 행동적 실천을 비교한 결과, '생각만할 뿐 실천하지 않는다'가 42.7%로 나타났다(박성미, 2010). 이는 여성이 일-가정갈등, 성역할 불평등, 아이는 엄마 몫이라는 인식, 출산 후 일자리 수준 하향화 등과 같은 노동시장 재진입의 현실적인 문제를 경험하면서 재취업에 대한 심리적 욕구를 높게 가지더라도 진로장벽에 의해 행동적 실천 수준이 낮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박효진, 은선경, 2012; 윤미례, 김태일, 2016). 최근 연구에서도 경력단절여성은 일반 재취업여성에 비해 높은 진로장벽을 경험하며 취업준비 수준이 낮았다(손영미, 박정열, 2016). 이러한 연구결과는 경력단절여성의 진로발달과 취업 등에는 실질적인 진로준비행동이 중요하며, 이러한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기혼여성이 경력단절로 인해 겪는 진로장애를 이겨내고 진로준비행동을 하게 만드는 심리적 요인으로 진로탄력성을 들 수 있다(김희동, 남수미, 2016; 최유진, 손은정, 2016; 홍초롱, 2016). 진로탄력성(Career resilience)은 자아탄력성으로부터 비롯된 개념으로 진로와 관련한 '역경 상황의 발생'을 전제로 하여 이 역경을 적응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가리킨다(Bimrose & Hearne, 2012). 즉, 진로목표

www.kci.go.kr

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역경에도 불구하고 진로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긍정적 정서를 유지하며 자신의 진로를 관리해 나가는 능력이다. 이러한 진로탄력성은 진로환경 속에서 겪는 다양한 정서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였다(김미경, 2013; 김희동, 남수미, 2016; 유현실, 2013). 진로탄력성은 실직이나 승진탈락, 직무 변경이나 전직 등과 같은 진로 발달상의 위기에 처한 성인 근로자들 대상으로 연구되어 왔으나(유현실, 2013), 최근에는 학교 밖 청소년, 구직 단념자, 심리적 문제로 인해 진로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내담자 등과 같은 진로발달 과정에서 역경을 경험하는 대상에게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강남욱, 김장회, 2016).

선행 연구에 따르면, 회복탄력성 수준이 높을 경우 진로장벽을 덜 지각하도록 하여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이슬, 송병국, 2015). 또한 진로탄력성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쳤다(최유진, 손은정, 2016). 높은 진로탄력성을 가진 사람의 경우 스트레스 상황에 스스로 긍정적인 정서를 이끌어 내어 적응에 성공적으로 대처하였으며(Block & Block, 1980; Mayer, Caruso, & Salovey, 1999), 이는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김수정, 송성화, 조민경, 2013; 전주연, 송병국, 2014). 그렇다면 진로장애를 지각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준비행동에 진로탄력성이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 경험적 연구에서도 진로탄력성이 배우자 지지보다 진로준비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최유진, 손은정, 2016). 하지만 구체적으로 진로탄력성이 진로준비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적 기제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특히 진로준비행동이라는 실질적인 행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개인의 심리적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들 변인들이 진로탄력성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진로와 관련된 상황에서 자신의 정서를 효율적으로 조절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의 중요성이 언급되면서 정서조절 능력이 주목받고 있다(김종운, 박성실, 2014; 장진이, 2016; 정승헌, 김금미, 2010). 정서조절 능력이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서적 반응을 관찰하고 평가하여 조절해 나가는 내·외적인 과정이다(Thompson, 1994). 또한 정서조절 능력은 효율적으로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현재 경험하는 정서적 상태와 무관하게 내가 기대하거나 원하는 목표를 고려하여 행동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다. 정서조절 능력을 가질 경우,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더라도 상황에 대한 긍정적 재평가 혹은 조망 확대 등을 통해 효율적인 정서조절이 가능한 반면, 그렇지 않을 경우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행동하여 개인의 정신건강 및 삶의 질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신윤정, 2014; Aldao, Nolen-Hoeksema, & Schweizer, 2010).

개인은 진로를 준비함에 있어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진로를 결정하였어도 결정된 목표를 성취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면 불안감, 막막함, 두려움 등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Ocansey, 2000). 이와같이 진로발달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확실성은 보다 큰 정서적 불안정을 경험하게 하는 만큼 이러한 정서 경험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Emmerling & Cherniss, 2003). 실제로 자

www.kci.go.kr

신의 정서를 이해하고 적절히 조절하는 것은 합리적인 직업 선택과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Emmerling & Cherniss, 2003). 이를 반영하듯 진로결정 과정에서 정서지능 등이 강조되어 오고 있는 가운데(Di Fabio & Kenny, 2011)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험적 연구 결과에서도 정서조절 어려움이 부분매개 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장진이, 2016). 또한 여대생의 효율적인 정서 활용과 취업준비행동 간의 관련성이 유의미하였는데(권해수, 2014),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적응적인 정서의 활용이 인지적 측면과 더불어 진로선택과 진로관련 행동의 핵심적 요소라는 주장과(Brown, George- Curran, & Smith 2003; Emmerling & Cherniss, 2003) 일치하는 것이다.

특히,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공허감, 절망감, 단절감을 느끼게 되기 쉽고(문지연, 2013), 육아만 전담하던 삶에 대해 스트레스와 정체성 혼란, 불안 등(윤혜경, 2008) 더 큰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만큼 정서조절 능력이 더 요구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실제로 실직 여성 대상 연구에서도 이들은 우울, 불안, 분노 등을 경험하며 부정적인 정서를 효율적으로 조절하지 못하였고(국지연, 2011), 그 결과 의사결정과정에서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려(박용두, 이기학, 2007), 진로준비행동에 어려움을 겪었다(황지영, 박재황, 2015). 정서적으로 안정된 경우 진로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덜 지각하였던 만큼(Pecjak & Kosir, 2007), 경력단절여성이 자신의 정서적 경험을 적절하게 활용할 경우 고용가능성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홍아정, 2012).

이러한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Mater & Salovey, 1993). 탄력성 수준이 높은 사람은 역경과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시켜 문제상황에서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회복하는 경향이 있었다(최지현, 2009). 반면에 탄력성 수준이 낮은 사람의 경우 실패 상황에서 부적응적인 정서조절을 통해 우울, 불안 등 부정적 정서를 느끼며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박원주, 2016).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경력단절여성이 자신의 정서를 효율적으로 조절하도록 하는 데 진로탄력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탄력성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조절 능력이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가정하고자 한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준비행동을 높여주는 또 다른 예측 변인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들 수 있다(이희정, 김금미, 2010; 임은주, 201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나 문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과 신념인 자기효능감이 행동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 이론에서 비롯된 개념이다.

자기효능감은 행동 및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할 수 있는 유동적인 개념인 만큼(Lent, Brown, & Hackett, 1994). 진로상담 시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변인으로 연구되어 왔다(김지연, 이기학, 2014; 이희정, 김금미, 2010; Tang, Fouad & Smith, 1999). 이후 Betz와 Hackett(1981)은 자기효능감을 진로선택 및 적응과 관련하여 진로 자기효능감으로 개념화하여 진로 분야에 접목시켰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란 자신의 진로목표

www.kci.go.kr

와 관련한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느끼는 자신감으로(Taylor & Betz, 1983) 자아탄력성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만을 통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쳤으며(김지연, 이기학, 2014; Lent, Brown, & Hackett, 1994), 경력단절여성의 경우에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해 진로탄력성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쳤다(최유진, 손은정, 2016). 따라서 경력단절여성의 진로탄력성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들 수 있다.

한편, 인지적 변인으로서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김지연, 이기학, 2014; Lent, Brown, & Hackett, 1994) 정서의 효율적인 활용이 영향을 미쳤다(Kidd, 1998). 앞서 기술하였듯이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다양한 진로장벽에 대한 지각과 이로 인해 부정적인 정서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 만큼(최유진, 손은정, 2016) 정서조절 능력이 중요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정서조절 능력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실제로 선행 연구에서 불안정한 정서의 효율적인 조절은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인 자기효능감 수준을 높였다(유지현, 2013). 즉,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효율적인 정서의 활용을 통해 높아질 수 있으며, 높아진 효능감은 진로장벽을 낮게 지각하게 만들어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높인다고 할 수 있다(김종운, 박성실, 2014). 또한 관련 선행연구에서도 부정적 정서의 효율적인 조절은 자기효능감과 학업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유지현, 2013), 적응적인 정서조절 전략은 교사의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우수경, 2016; 임지윤, 도승이, 2014). 따라서 경력단절여성의 진로탄력성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조절 능력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이중매개 효과를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진로탄력성, 정서조절 능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살피고, 이들 간에 있을 수 있는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의 실질적인 진로준비행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상담적 개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들 변인들 간의 통합적인 인과 관계를 탐색하고자 구조적 관계를 설정하고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가설과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진로탄력성은 정서조절 능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진로탄력성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능력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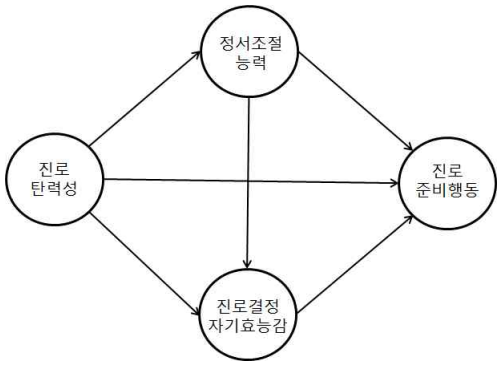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www.kci.go.kr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교육센터 · 대학(원) · 복지관 등과 구글 온라인 설문지를 이용해 설문 조사하였다. 총 297명의 자료를 취합하였으며, 이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 및 본 연구와 관련 없는 대상자를 제외한 243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구체적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측정도구

진로탄력성

진로탄력성은 김미경(2013)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신뢰, 성취열망, 진로자립, 변화대처, 관계활용 등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0문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척도 중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개념이 포함되는 '자기신뢰'의 6문항을 제외한 24문항을 연구에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식 척도로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탄력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미경(2013) 연구에서 진로탄력성의 내적합치도계수(Cronbach's α)는 .93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계수는 .92으로 나타났다.

정서조절 능력

정서조절 능력은 Gratz와 Roemer(2004)가 제작한 정서조절 곤란 척도(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DERS)를 조용래(2007)가 번안 및 타당화한 설문지(Korean version of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K-DERS)를 사용하였다. 충동통제 곤란,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 부족,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정서적 명료성의 부족, 정서조절 전략에 대한 접근제한, 목표지향행동 어려움 등 6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5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5점 Likert식 척도로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의 편의를 위해 최재천(2014)의 연구와 같이 모든 문항을 역산으로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조절을 잘하여 정서조절 능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단일요인으로 사용하였으며, 분석을 위해 Russell, Kahn, Spoth와 Altmaier(1998)의 제안에 따라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단일요인을 가정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부하량의 절대값에 따라 각 문항별 순위를 매긴 후 가장 큰 부하량을 지닌 문항과 가장 작은 부하량을 지닌 문항을 짝으로 묶어 순서대로 세 개의 문항꾸러미를 구성하였다. 이는 추정할 모수의 수를 줄이면서 잠재변인 추정이 왜곡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신뢰도는 조용래(2007)연구에서 내적합치도계수는 .92, 최재천(2014)의 연구에서는 .90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94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CDMSES)의 단축형인 CDMSES-SF를 김미영(2005)이 수정 · 번안하였고, 이희정(2009)이 경력단절여성이 설문하기 용이하도록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

www.kci.go.kr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퍼센트(%)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7	2.9
	부산광역시	1	0.4
	대구광역시	139	57.2
	인천광역시	2	0.8
	대전광역시	1	0.4
	울산광역시	9	3.7
	경기도・강원도	12	4.9
	경상북도	62	25.5
	경상남도	7	2.9
	충청도	3	1.2
취업을 위해 하는 일	인터넷 강의	36	14.8
	학업(사이버대학・대학(원) 등)	45	18.5
	교육센터방문	82	33,7
	기타	80	32.9
결혼여부	기혼	230	94.7
	이혼	9	3.7
	사별	4	1.6
연령	20대	7	2.9
	30대	66	27.2
	40대	110	45.3
	50대	60	24.7
본인 학력	중학교 졸업	11	4.5
	고등학교 졸업	66	27.2
	전문대 졸업	48	19.8
	대학교 졸업	104	42.8
	대학원 졸업 이상	14	5.8
과거 직종	기술직	8	3.3
	판매직	12	4.9
	서비스직	42	17.3
	사무직	57	23.5
	관리직	5	2.1
	영업직	8	3.3
	생산직	16	6.6
	교육직	42	17.3
	전문직	37	15.2
	기타	16	6.6

www.kci.go.kr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계속)

구분		빈도(명)	퍼센트(%)
경력 단절 기간	1년 미만	32	13.2
	1년 이상-3년 미만	36	14.4
	3년 이상-5년 미만	46	18.9
	5년 이상-10년 미만	54	22.2
	10년 이상	76	31.3
경력 단절 원인	결혼	82	33.7
	출산	32	13.2
	육아	57	23.5
	가족의 권유	3	1.2
	개인적 이유(질병, 부상)	31	12.8
	권고사직	2	0.8
	정리해고	4	1.6
	기타	32	13.2
자녀 수	1명	51	21.0
	2명	163	67.1
	3명	21	8.6
	4명 이상	1	0.4
	자녀 없음	7	2.9
막내 자녀 학령	0 - 3세	32	13.2
	4 - 7세	55	22.6
	초등학생	42	17.3
	중학생	12	4.9
	고등학생 이상	95	39.1
	없음	7	2.9
가구 소득	100-200만원 미만	24	9.9
	200-300만원 미만	60	24.7
	300-400만원 미만	63	25.9
	400-500만원 미만	38	15.6
	500만원 이상	58	23.9
전 체		243	100

주. N=243

www.kci.go.kr

평가, 목표설정, 문제해결, 직업정보, 미래계획인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0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Likert식 척도로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에 필요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희정(2009) 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내적 합치도계수는 .90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93으로 나타났다.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은 김봉환(1997)이 대학생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개발한 진로준비행동 검사도구(16문항)에 김형균(2003)이 인터넷 진로정보 등과 같은 현실을 고려해 수정하고, 이희정(2009)이 경력단절여성이 설문하기 용이하도록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정보수집활동, 도구구비활동, 실천적 노력 등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8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Likert식 척도로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에 관한 준비 행동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희정(2009) 연구에서 진로준비행동의 내적합치도계수는 .97, 본 연구에서는 .95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는 진로탄력성, 정서조절 능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간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SPSS 22.0과 AMOS 22.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F검증,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각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각 변인별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넷째, 연구모형, 수정모형, 경쟁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최종 모형 변인들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부스트랩(bootstrap)을 실시하였다. 일곱째, 다중매개효과의 간접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팬텀변수(phantom variable)를 사용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 과

경력단절여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 경력단절여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연령, 학력, 막내자녀의 학령, 가구소득과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과 Sheffe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학력의 경우 대학원 졸업에서 가장 높은 진로준비행동이 나타났으며(M=2.82, SD=.66), 다음으로는 대학교 졸업(M=2.75, SD=.65), 고등학교 졸업(M=2.47, SD=.59), 중학교 졸업(M=2.35, SD=.83), 전문대 졸업(M=2.30, SD=.64) 순으로 나타났다. Scheffe의 사후분석 결과, 대학교 졸업의 경력단절여성이 전문대 졸업 여성보다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막내자녀 학령의 경우 중학생일 경우 가장 높은 진로준비행동이 나타났으며(M=3.03, SD=.54), 다음으로는 초등학생(M=2.66, SD=.66), 고등학생 이상(M=2.65, SD=.63), 4-7세(M=2.43, SD=.69), 자녀 없음(M=2.30, SD=.72) 순으로 나타났다.

www.kci.go.kr

표 2. 연구대상자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구분		진로준비행동				
		N	*M*	*SD*	*F*값	*Scheffe*
연령	20대	7	2.03	.78	2.234	-
	30대	66	2.49	.59		
	40대	110	2.63	.69		
	50대	60	2.62	.65		
학력	중학교 졸업[a]	11	2.35	.83	5.490	d>c
	고등학교 졸업[b]	66	2.47	.59		
	전문대 졸업[c]	48	2.30	.64		
	대학교 졸업[d]	104	2.75	.65		
	대학원 졸업이상[e]	14	2.82	.66		
막내자녀 학령	0-3세	32	2.37	.62	3.044	-
	4-7세	55	2.43	.69		
	초등학생	42	2.66	.66		
	중학생	12	3.03	.54		
	고등학생 이상	95	2.65	.63		
	없음	7	2.30	.72		
가구소득	100-200만원 미만	26	2.62	.56	.791	-
	200-300만원 미만	60	2.45	.68		
	300-400만원 미만	63	2.60	.65		
	400-500만원 미만	38	2.66	.61		
	500만원 이상	58	2.59	.73		

주. N=243 p<.01, p<.001

Scheffe의 사후분석 결과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연령과 가구 소득은 진로준비행동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진로탄력성, 정서조절 능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의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진로탄력성에서 평균 3.56로 보통수준의 진로탄력성을 경험하고 있었고, 정서조절 능력은 3.54로 평균값을 보여 보통 수준을 나타내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3.27로 나타났으며, 진로준비행동은 2.57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 모델에서 사용되는 측정치들이

www.kci.go.kr

표 3. 주요 변인들의 상관계수

		1	2	3	4
1	진로탄력성	1			
2	정서조절 능력	.48**	1		
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73**	.38**	1	
4	진로준비행동	.58**	.18**	.63**	1
	평균	3.56	3.54	3.27	2.57
	표준편차	0.52	0.52	0.51	0.66
	왜도	-0.37	-0.50	-0.81	-0.39
	첨도	0.19	1.14	-0.00	0.13

주. N=243 p<.01 1.진로탄력성 2.정서조절 능력 3.진로결정 자기효능감 4.진로준비행동

다변량 정규성(multivariate normality) 기본가정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각각 2와 7을 넘지 않으므로 다변량 정규성이 성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West, Finch & Curran, 1995).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진로탄력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r=.73, p<.01), 진로탄력성과 진로준비행동(r=.58, p<.0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r=.63, p<.01)의 관계에서 강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진로탄력성과 정서조절 능력(r=.48, p<.01), 정서조절 능력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r=.39, p<.01)은 보통 수준의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정서조절 능력과 진로준비행동(r=.18, p<.01)의 관계에서는 약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3과 같다.

측정모형 검증

구조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측정 변인들이 잠재 변인들을 얼마나 잘 측정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측정 모형 검증을 실시한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TLI=.943, CFI=.955, $RMSEA$=.080, $SRMR$=.060으로 수용 가능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잠재변인을 설명하는 측정변인들의 요인 부하량을 살펴보면 진로탄력성 .45 ~ .84, 정서조절능력 .88 ~ .98,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76 ~ .91, 진로준비행동 .89 ~ .95로 진로탄력성의 변화대처를 제외하고 모두 .5 이상으로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AVE값은 모두 .5 이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수렴타당도가 검증되었다. 또한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모두 .8 미만으로 나왔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4, 그림 2와 같다.

연구모형과 수정모형 검증

연구모형 검증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x^2=215.715, df=84, TLI=.943, CFI=.955, $RMSEA$=.080, $SRMR$=.060,으로 양호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5와 같다.

그림 3에서 제시된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진로탄력성이 정서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30, p<.001), 정서조절 능력이 진

www.kci.go.kr

표 4. 측정모형의 수렴타당도 부하량

잠재변수	측정변수	표준화	비표준화	S.E	C.R	AVE
진로탄력성	성취열망	.71	1.06	.13	5.92	.73
	진로자립	.84	1.39	.15	9.09	
	변화대처	.45	.45	.07	8.35	
	관계활용	.59	1.00			
정서조절 능력	정서조절1	.88	.85	.04	20.45	.95
	정서조절2	.98	.99	.04	25.44	
	정서조절3	.89	1.00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기평가	.87	1.27	.09	14.46	.63
	목표설정	.91	1.48	.10	15.55	
	문제해결	.84	1.25	.09	14.07	
	직업정보	.85	1.28	.09	14.22	
	미래계획	.76	1.00			
진로준비행동	정보수집	.89	.93	.04	23.03	.91
	도구구비	0.89	0.99	.04	23.49	
	실천노력	0.95	1.00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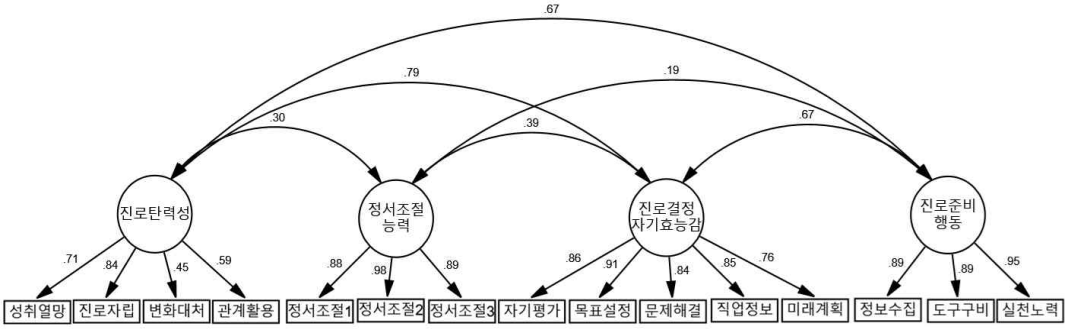


그림 2. 측정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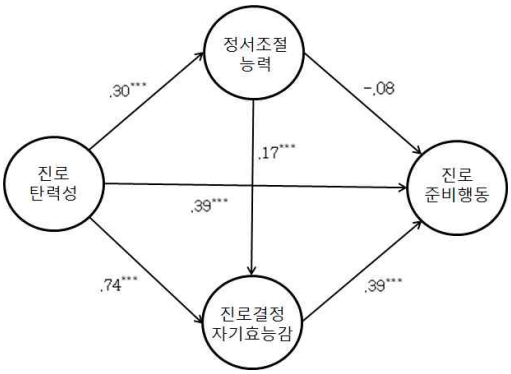
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14, p<.00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39, p<.001), 진로탄력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74, p<.001), 진로탄력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였다(□=.67, p<.001). 그러나 정서조절 능력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www.kci.go.kr

표 5. 연구모형, 수정모형의 적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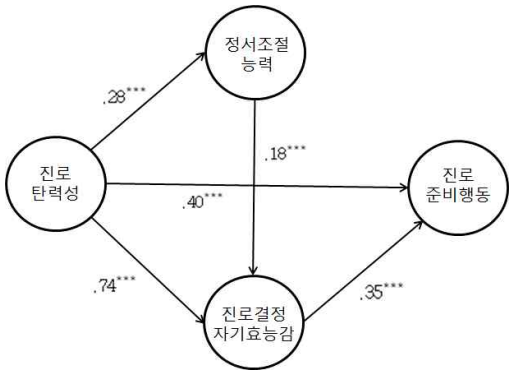
적합도 지수	x^2	*df*	*TLI*	*CFI*	*RMSEA*	*SRMR*
연구모형	215.715	84	.943	.955	.080	.060
수정모형	217.547	85	.944	.954	.080	.062

주. N=243



p<.001

그림 3. 연구모형



p<.001

그림 4. 수정된 최종 모형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하였으나 정서조절능력이 진로준비행동으로 가는 1개의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만큼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를 제거하여 간명도가 높은 최적의 모형인 수정모형을 구성하였다. 수정모형의 적합도는 x^2=217.547, df=85, *TLI*=.944, *CFI*=.954, *RMSEA*=.080, *SRMR*=.062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는데, 구체적인 결과는 표 5, 그림 4와 같다.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x^2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의 차이 값($\triangle x^2$=1.8, $\triangle df$=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 간명성의 원칙에 따라 수정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최종 수정모형의 모수추정치를 살펴본 결과, 진로탄력성이 정서조절 능력과(□=.28, p<.00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74, p<.001), 진로준비행동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0, p<.001). 또한 정서조절 능력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18, p<.00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5, p<.001). 구체적인 결과는 표 6과 같다.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진로탄력성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능력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진로탄력성은 정서조절 능

www.kci.go.kr

표 6.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의 경로계수

경 로	연구모형		수정모형	
	B	□	B	□
진로탄력성 → 정서조절 능력	.35	.30	.34	.28
진로탄력성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75	.74	.76	.74
정서조절능력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14	.17	.15	.18
진로탄력성 → 진로준비행동	.67	.39	.69	.40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진로준비행동	.67	.39	.60	.35
정서조절 능력 → 진로준비행동	-.11	-.08		

$p<.001$

력과 진로결정 효능감을 통해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8). 정서조절 능력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만을 통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06), 진로탄력성은 정서조절 능력을 통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05). 이때 신뢰구간 90%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과의 유의미성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진로탄력성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능력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7과 같다.

또한, AMOS를 활용할 경우 여러 가지의 매개효과가 있는 모형에서 특정 경로를 통한 하

표 7. 주요 변인들의 직접, 간접, 총 효과

경 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90% 신뢰구간	
진로탄력성	→	정서조절 능력			.28	-	.28
진로탄력성	→	정서조절 능력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74	.05 (.025~.090)	.79
진로탄력성	→	정서조절 능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진로준비행동	.40	.28 (.112~.443)	.68
정서조절 능력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18	-	.18
정서조절 능력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진로준비행동	-	.06 (.024~.115)	.06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진로준비행동			.35	-	.35

$p<.05$, $p<.01$, $p<.001$

www.kci.go.kr

표 8. 팬텀변수를 활용한 매개효과 검증

경 로	간접효과	90% CI	
		lower	upper
1. 진로탄력성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진로준비행동	.01	.17	.76
2. 진로탄력성 → 정서조절 능력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진로준비행동	.03	.01	.07

$p<.05$, $p<.01$

나의 매개효과만을 구분하여 값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팬텀변수(phantom variable)를 활용하여 개별간접효과를 검증할 결과, 1번, 2번의 경로가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서조절 능력은 진로탄력성과 진로준비행동 사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진로탄력성은 정서조절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정서조절 능력은 다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으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8과 같다.

논 의

본 연구는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진로탄력성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능력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지방광역시 및 중・소도시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대학(원)・복지관 혹은 구글 온라인을 통해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총 297명이 참여하였고, 불성실한 답변과 본 연구와 관련 없는 답변 한 설문지를 제거한 243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우선 경력단절여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본인 학력 및 막내 자녀 학령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경력단절여성의 학력과 노동시장 복귀(김난주, 2016; 김지경, 2004), 막내 자녀의 학령과 재취업 행동(김난주, 2016) 간에 유의미한 관련이 있다는 기존의 연구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경력단절여성의 연령 및 가구 소득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경력단절여성의 연령과 가구 소득이 재취업 욕구 및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권희경, 2010; 김난주, 2016; 김지경, 2004). 그러나 가구소득이 낮아 가계에 보탬이 되기 위한 재취업 욕구는 있으나 육아, 살림 등 현실적인 이유로 진로준비행동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와는 부분 일치한다(박효진, 은선경, 2012). 이는 경력단절여성의 연령과 가구소득은 진로준비행동에 안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아님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추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주요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모든 변인들 간 관련성이 유의미하였다. 경력단절여성의 진로탄력성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가장 관련성이 높았고, 다음으로 진로준비행동, 정서조절 능력 순이었다. 이

www.kci.go.kr

는 자아탄력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정적 상관 있으며(임주영, 윤경자, 2013; 최유진, 손은정, 2016),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았다는(김수정, 송성화, 조민경, 2013; 김지연, 이기학, 2014)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특히, 진로준비행동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높은 수준의 관련성을 나타냈는데, 진로발달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이 중요하며(Hackett & Betz, 1981; Hartung, Porfeli, & Vondracek, 200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성공적인 진로선택과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김지연, 이기학, 2014; 이희정, 김금미, 2010; 주영주, 고경이, 정유진, 2015; 전미리, 김봉환, 2015) 지지하는 것이다.

둘째, 진로탄력성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능력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지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한 결과, 정서조절 능력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경로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경로를 제거한 수정모형을 검증한 결과, 진로탄력성이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정서조절 능력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이중매개를 통하여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진로탄력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던 선행연구와(김지연, 이기학, 2014; 최유진, 손은정, 2016; Brown & Hackett, 1994)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정서조절 능력은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진로탄력성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다양한 변인이 개입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매개변인인 정서조절 능력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개입이 타당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공허감, 절망감, 불안 등의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국지연, 2011; 문지연, 2013) 진로탄력성이 진로발달 과정에서 정서를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한다는 연구 결과에(김희동, 남수미, 2016; 유현실, 2013) 따라 정서조절 능력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진로탄력성과 진로준비행동 사이에서 정서조절 능력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준비행동에 정서조절 능력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의 진로 발달에 대한 이론이 부재하는 만큼 경력단절 여성의 진로 발달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단,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만큼 경력단절여성 대상 진로상담에서는 정서조절 능력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에 대한 평가와 개입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입의 구체적인 변인과 심리적 기제에 대한 탐색은 경력단절여성의 실질적인 진로준비행동을 향상시킴으로써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여성이 생애 사건으로 불가피하게 지속적인 경력 개발을 해나갈 수 없는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성역할 불평등 등의 사회문화적 요인은 여성의 일-가정 갈등, 양육 부담 등을 강화시켜 높은 진로장벽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손영미, 박정열, 20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인한 진로장벽을 극복하

www.kci.go.kr

도록 하는 개인의 특성 변인을 찾고, 이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탐색함으로써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상담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개인의 내적 변인에 국한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한 만큼 사회문화적 요인의 영향을 반영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사회문화적 변인과의 상호작용 효과나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을 면밀하게 통제하여 분석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진로발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변인과 사회문화적 변인 등을 통합적으로 조망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혼여성이 재취업을 준비함에 있어 가족의 지지 및 지원, 진로장벽 지각, 정부의 지원 체계 등 환경적 요인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김성진, 2015; 박효진, 은선경, 2012; 윤미례, 김태일, 2016) 이러한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탐색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준비행동은 자녀의 수 및 연령, 본인의 학력 수준, 경력단절 기간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는 만큼 경력단절여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고, 밝혀진 구조적 관계가 이러한 집단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진로탄력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변별되는 개념으로 연구되어 왔고(김지연, 이기학, 2014; 최유진, 손은정, 2016) 두 변인간의 관련성을 높일 수 있는 하위 변인을 제거한 후 설문을 실시하였지만, 본 연구 결과에서 높은 관련성을 나타냈다. 추후 두 변인의 변별타당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구·경북 지역의 경력단절여성 자료가 높은 비율로 수집되어 다른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각 지역의 산업구조와 경제적 수준의 차이에 따라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의의는 진로탄력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조절 능력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통합적으로 확인하였다는 데 있다. 즉,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진로준비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심리적 기제를 검증함으로써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상담 전략과 프로그램에서 초점화해야 할 개인 내적 변인을 명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통계청 (2016a). 여성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경제활동인구연보. 사회・복지

통계청 (2016b). 일・가정 양립 지표. 보도자료.

통계청 (2016c).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보도자료.

강남욱, 김장회 (2016). 진로탄력성에 관한 연구동향 고찰. 인문학논총, 41, 181 20 8.

국지연 (2011). 실직자들의 자아존중감이 정서적 어려움, 신체화에 미치는 영향. 미래교육학연구, 24(2), 1-28.

권선경, 이지연, 장진이 (2015). 학업적 열등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정서조절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성취도의 차이. 아시아교육연구, 16(3), 87-106.

권해수 (2014).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성격 5요인, 역기능적 진로사고, 정서지능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간이해, 35(2), 45-64.

www.kci.go.kr

권희경 (2010). 경력 단절 기혼 여성의 재취업 욕구 관련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1), 87-98

김경은, 김승천 (2016).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따른 심리내적 특성 차이: 완벽주의, 정서조절 전략을 중심으로. **인간이해**, 37(1), 21-40.

김난주 (2016).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과 재취업 이후 고용유지 분석. **산업관계연구**, 26(2), 1-27.

김미경 (2013). **전문대학생 진로탄력성 척도개발**.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민정 (2013). 여성 경제활동 증가의 긍정적 효과-출산율과 경제성장률 제고 가능. **한국경제주평**, 539(단일호), 1-14.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봉환, 김계현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9(1), 311-333.

김성진 (2015). 여성경제활동 양상의 변화 (2000~2013). **정치정보연구**, 18(2), 223-248.

김소연 (2016). **고학력 경력단절 기혼여성이 지각한 자아개념과 신체상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포커싱적 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덕성여자대학교 문화 · 산업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수리, 이수림, 유정이 (2015). 직업 경력단절 기혼 여성에 대한 질적 연구: 30대 여성의 경력단절 이후의 삶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9(2), 75-99.

김수정, 송성화, 조민경 (2013).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진로교육연구**, 26(4), 85-107.

김종운, 박성실 (2014). 대학생의 정서지능과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장벽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5(1), 279-300.

김주영 (2010). 여성의 경력단절과 노동시장 재진입. **노동리뷰**, (65)8, 36-50.

김지경 (2003). **기혼여성의 출산 후 경력단절 및 노동시장 복귀에 관한 분석**. 제 3 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김지경 (2004). 젊은 기혼여성의 출산 후 취업 연속성 결정요인. *Family and Environ ment Research*, *42*(3), 91-104.

김지연, 이기학 (2014). 자아탄력성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취동기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The Journal, 27(3), 1-25.

김진하 (2016). 취업 상태 변화에 관한 동태적 연구. **한국경제연구**, 34(3), 127-166.

김희동, 남수미 (2016). 비인문계 고등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탄력성의 관계에서 진로준비행동의 매개효과-유니테크(Uni-Tech) 통합교육과정참여 학습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종합연구**, 14(2), 53 -80.

문지연 (2013). 기혼여성의 육아와 취업에 대한 갈등과 해결방안 탐구. **미래교육학연구**, 26, 29-55.

박고운, 이기학 (2007). 진로결정자율성수준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409 -422.

박성미 (2010).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욕구형태에 따른 진로행동 분석. **수산해양교육연구**, 22(2), 165-179.

박수미 (2003). 한국여성들의 두 번째 노동시

www.kci.go.kr

장 이행에 대한 종단적 연구. 한국여성학, 19(1), 43-80.

박용두, 이기학 (2007). 정서지능, 지각된 진로장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 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4), 1041-1056.

박원주 (2016). 자아탄력성이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과 부정적 정서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3(7), 117-141.

박정열, 손영미 (2015). 일상재구성법을 통한 경력단절여성의 일상생활과 정서경험분석. 여가학연구, 12(2), 89-120.

박효진, 은선경 (2012). 경력단절 경험을 가진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의 일-가족양립 정책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7(1), 5-29.

서미경 (2009). 중고령 여성의 취업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신윤정 (2014). 대학생들의 사회적 지지와 생활 스트레스 간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8), 243- 263.

손영미, 박정열 (2016).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예측요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0(2), 165-184.

엄경애, 양성은 (2011).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및 자녀양육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1), 21-40.

오은진, 박성정, 민현주, 김난주, 송창용, 김지현 (2009). 경력단절연성의 재취업 성공요인 및 경로분석. 서울: 여성가족부.

우수경 (2016). 유아교사의 정서지능과 정서조절책략이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3(2), 257-275.

유나현, 이기학 (2005). 애착, 심리적 독립, 정서지능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451-466.

유정이, 김수리, 이수림 (2016). 30대 대졸 경력단절 기혼여성의 재취업 시도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4), 931-964

유지현 (2013). 학업적 정서조절, 학습전략,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의 관계 분석. 교육심리연구, 27(3), 715-738.

유현실 (2013). 진로탄력성 개념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성인 진로상담에 대한 시사점. 상담학연구, 14(1), 423-439.

윤미례, 김태일 (2016). 출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상황, 유형과 영향 요인 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6(2), 153-185.

윤혜경 (2008).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진로 탐색 경험 분석. 평생교육학연구, 14(1), 83-112.

은혜경, 김창대 (2011). 경력단절 기혼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진로유연성 탐색: 재취업 성공 기혼여성의 인식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2(2), 651-671.

은혜선 (2016년 10월 8일). [Weekly BIZ} “여성 경제 활동 참여가 저상장 돌파구”. 조선일보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07/2016100701548.html.

이은정 (2012).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 긍정정서와 진로장벽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지영, 권석만 (2006). 정서조절과 정신병리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www.kci.go.kr

18(3), 461-493.

이하늘, 이 숙 (2012).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지지와 정서조절능력 및 자기효능감의 경로분석.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0*(2), 65-74.

이희정 (2009).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자역 지각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광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희정, 김금미 (2010). 진로상담: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장벽지각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1(2), 623-640.

임은주 (2012). **경력단절여성의 사회적지지 인식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주영, 윤경자 (2013). 대학생의 자아탄력성, 대학생활만족도 및 성취동기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3), 113-130

임지윤, 도승이 (2014). 중등 교사의 정서조절이 교사 직무스트레스, 소진,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사고개발**, 10(1), 105- 126.

장서영 (2008).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여성연구**, 74(1), 79-104.

장이슬, 송병국 (2015).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22(7), 363-392.

장지연. (2007). 여성노동과 가족-평등한 노동을 위한 패러다임. **한국여성민우회 발간자료**, 11-45.

장지현, 김민영, 장원섭 (2010). 경력단절 여성의 구직경로가 성공적인 노동시장 재진입에 미치는 영향. **여성연구**, 78(1), 31-76.

장진이 (2016). 대학생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경험회피, 정서조절 어려움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7(2), 121-139.

전미리, 김봉환 (2015). 대학생의 성격 5 요인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2), 445-461.

전주연, 송병국 (2014). 청소년이 지각한 긍정심리자본이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1(3), 171-200.

정성미 (2006). 여성 재취업 고용형태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노동리뷰**, 15(3), 39-50.

정승헌, 김금미 (2010). 진로상담: 정서지능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탐색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1(2), 739-753.

조용래 (2007). 정서조절곤란의 평가: 한국판척도의 심리측정적 속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4), 1015-1038.

조익재 (2016). **경력단절여성의 양육스트레스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주영주, 고경이, 정유진 (2015). 대학생의 긍정적 정서,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결과기대가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만족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8(3), 65-83.

진미화, 조옥귀 (2009). 중학생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용, 정서조절양식 및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교육이론과 실천**, 19(단일호), 49-77.

최유진, 손은정 (2016). 경력단절여성의 배우자 지지와 진로탄력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

www.kci.go.kr

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1(4), 749-768.

최은영 (2016). 기혼여성의 취업과 자녀수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여성경제연구 12(1), 51-70

최재천 (2014). 의존성·회피성 성격특성이 청소년 휴대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을 매개로. 인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지현 (2009). 정서지능과 자아탄력성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허미연 (2010). 여성인적자원개발기관과 취업효과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홍아정 (2012). 경력단절 여성의 감성지능이 고용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연결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Aandragogy Today: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15(3), 35-61

홍초롱 (2016). 성인학습자가 지각한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탄력성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지영, 박재황 (2015).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관련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직업교육연구, 34(5), 73-101.

Aldao, A., Nolen-Hoeksema, S., & Schweizer, S. (2010). Emotion-regulation strategies across psychopathology: A meta-analytic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30*(2), 217-237.

Bandura, A. (1993). Perceived self-efficacy in cognitive development and functioning. *Educational psychologist, 28*(2), 117-148.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

Betz, N. E., &Hackett, G. (1981). The relationship of career-related self- efficacy expectations to perceived career options in college women and 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5), 399.

Bimrose, J., &Hearne, L. (2012). Resilience and career adaptability: Qualitative studies of adult career counsel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1*(3), 338-344.

Block, J. H., & Block, J. (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Development of cognition affect, and social relations: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Vol. 13, pp. 39-101).

Brown, C., George-Curran, R., &Smith, M. L. (2003). The role of emotional intelligence in the career commitment and decision-making proces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1*(4), 379-392.

Emmerling, R. J., &Cherniss, C. (2003). Emotional intelligence and the career choice proces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1*(2), 153-167.

Gratz, K. L., &Roemer, L. (2004).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Development, factor structure,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26*(1), 41-54.

Hartung, P. J., Porfeli, E. J., & Vondracek, F. W. (2005). Child vocational development: A review and reconsideration. *Journal of vocational*

www.kci.go.kr

behavior, *66*(3), 385-419.

Kidd, J. M. (1998). Emotion: An absent presence in career theor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2*(3), 275-288.

Krumboltz, J. D. (2009). The happenstance learning the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7*(2), 135-154.

Lent, R. W., Brown, S. D., &Hackett, G.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1), 79-122

London, M. (1983). Toward a theory of career motivation. *Academy of manage ment review*, *8*(4), 620-630.

Mayer, J. D., Caruso, D. R., & Salovey, P. (1999). Emotional intelligence meets traditional standards for an intelligence. *Intelligence*, *27*(4), 267-298.

Mayer, J. D., & Salovey, P. (1993). The intellig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Intelligence*, *17*(4), 433-442.

Ocansey, F. (2000). Career Compromise and Adjustment Among Non-Professional Graduate Teachers. *Ife Psychologia*, *8*(2), 84-95.

Oecd, P. (2015). *OECD employment outlook*. Oecd.

Pecjak, S., & Kosir, K. (2007). Personality, motivational factors and difficulties in career decision-making in secondary school students. *Psihologijsketeme*, *16*(1), 141-158.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L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18-29.

Stier, H., & Yaish, M. (2008). The determinants of women's employment dynamics: The case of Israeli women.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4*(3), 363-377.

Tang, M., Fouad, N. A., &Smith, P. L. (1999). Asian Americans' career choices: A path model to examine factors influencing their career choic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4*(1), 142-157.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 behavior*, *22*(1), 63-81.

Thompson, R. A. (1994). Emotion regulation: A theme in search of defini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3), 25-52.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1차원고접수 : 2018. 08. 22.
심사통과접수 : 2018. 09. 30.
최종원고접수 : 2018. 10. 03.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018, Vol. 23, No. 3, 525-548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Resilience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n Career Interrupted Women: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 Regulation Abil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Kim Ae Sim **Jang Jin Yi**

Daegu Catholic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analyze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resilience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The survey conducted through related Institutions and Google on-line service included 243 women whose career has been interrupted. This study's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career resilience showed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s with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respectively. Second, career resilience had a significant impa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directly and had an effe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through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directly. But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had no significant impa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directly. Based on the result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suggested and the necessity of further research was also discussed.

Key words : career interrupted women, career resilience,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www.kci.go.kr